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9, 2026 Vol. 1028



2026 충현새일세계선교대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충현선교교회에서 '역사를 넘어 새일을 향해'(사 43:19)를 주제로 개최됐다. 토크 콘서트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 기독일보

"다시 가라고 해도 순종하겠습니다" 두 선교사 가정의 30년 선교 여정

2026 충현새일세계선교대회 선교사 가정 초청 토크 콘서트

2026 충현새일세계선교대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충현선교교회에서 '역사를 넘어 새일을 향해'(사 43:19)를 주제로 개최됐다.

특히 2일 저녁 집회에서는 인도 선교사 박민권·사모와 과테말라 선교사 안명수·사모를 초청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국윤권 목사와 민종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두 선교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서 사역해 왔는지, 자녀와 가족에 대한 고민,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위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이 진솔하게 나눠졌다.

박민권 선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선교의 꿈이 티베트 사역으로 이어진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에는 선교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목회자로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다. 그런데 아내를 통해 티베트 선교 이야기를 듣게 됐고, 아내가 티베트에 간다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선교사 부부는 1997년 결혼하면서 '티베트에 가는 것을 목표로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했고, 10년이 지난 2008년 충현선교교회의 파송을 받아 티베트 지역으로 향했다.

박 선교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많이 살기 때문에 차로 10~12시간을 가고, 다시 2~3시간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가정도 있었다"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누며 사역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그는 산간지역의 아이들을 도시로 데려와 방학 기간 동안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역이 알려지면서 중국 공안의 조사가 이어졌고, 결국 중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이 쫓겨나거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6개월, 1년 전부터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했는데 '인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티베트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망명인들을 돌볼 수 있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그는 중국을 떠난 후 인도 선교의 길을 열어갔다.

처음에는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파송이 무산될 뻔했지만, 이후 선교단체와 다시 연결돼 티베트인들을 섬기는 동시에 인도인들을 향한 마음도 품는다는 조건으로 인도에 파송됐다.

박 선교사의 사모는 티베트에서 인도로 사역지를 옮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가라면 가고, 저는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고 고백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간미연 · 황바울이 함께하는 '밀알의 밤'



남가주밀알 선교단이 매년 가을 개최하는 '밀알의 밤'이 오는 10월 9일(금) 토렌스조은교회와 10월 11일(주일)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열린다.

밀알의 밤은 장애인과 비쟁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민생활에 지친 한인들에게 위로와 쉼을 전하는 자리이다.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2026 밀알의 밤'에는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간미연과 뮤지컬 배우 황바울 부부가 무대에 올라 지금까지 걸어온 삶과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밀알의 밤은 10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토랜스조은교회, 10월 11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리며 티켓(hotdeal.koreadaily.com)은 20불이다.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AI 영향력 커질수록 '아날로그 영성' 갈망한다

인공지능(AI)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론 '아날로그 영성'을 추구하는 흐름도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을 발간한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6일, 이 책에서 제시한 내년 한국교회 10가지 트렌드를 하나씩 소개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 크리스천'과 '아날로그 영성', '리얼리즘 설교'다.

'프롬프트 크리스천'이란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을 AI에게 먼저 묻고, 그 답변을 성경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에게 신앙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성도는 전체 성도의 14%였고, 상담 경험자 중 80%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성도는 인간 사이의 '관계'와 '돌봄'을 더 원하고 있었다. AI 시대에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1순위로 목회자(42%)와 성도(39%) 모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관계적 목회(심방, 상담, 돌봄)'를 꼽았다.

목데연은 "성도가 '인간 존엄과 신앙 의미를 가르치는 능력'(31%)을 2위로 꼽은 것도 AI 시대일수록 목회자가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목데연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가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신앙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는 풍족해졌지만, 성도들의 영성은 오히려 빈곤해졌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6면에서 계속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정부보조 상담 환영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NEWSTA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주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 세미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목회를 위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 조채연 목사 (한국 충만교회)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 오후 3시
(점심 제공합니다)
장소 |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2057 W. Foothill Blvd. Upland, CA 91786
문의 | 황원진 목사 (626-622-3518)
* 10월 14일까지 사전 등록하시는 분께는 강사 저서 무료 제공
강사 소개
한국 및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 세미나 인도
저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2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등 다수 저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집회
일시: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 2시
2026년 10월 25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제20기 사랑장학회 장학생 모집

대학생 및 석사과정생 대상
10월 31일 지원 마감



남가주사랑의교회(이원준 목사) 산하 사랑장학회가 10월 31일(토)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사랑장학재단은 교회와 그 주변 지역 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미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신학대학원 및 전문대학 포함)은 지원할 수 있다.

석사 학위 과정생은 지원 가능하나, 박사 학위 과정 및 기타 전문대학원 과정은 지원 자격이 없다.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 시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사랑 공동체 교회 교인 또는 그 자녀, B. 기타 교회 또는 공동체 교인, C. 해외 선교사 자녀, D. 미국 내 자립형 교회 목사 자녀, E. 해외 선교사 또는 선교 단체의 추천을 받은 현지 신학교 재학생이다. E 범주에 한해 해외 학교 등록이 허용된다.

장학금 신청은 사랑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랑장학회: http://kdsfsarang.com



2026 충현새일세계선교대회. © 충현선교교회

➔ 1면 기사 〈30년 선교 여정〉에 이어서

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이 길이 참 기쁘고 즐거웠고, 과정 가운데 슬픔도 있었지만 보람 있는 길이었다. 다시 가라고 해도 순종하며 가겠다"고 말했다.

과테말라 안명수 선교사 역시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품었다고 간증했다.

안 선교사는 "신학교에 갈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갔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선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와야 할 곳에 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테말라 원주민들을 처음 만났을 당시 "동양에서, 한국에서 선교사가 올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30여 년 전 과테말라 사역 초기에는 마을과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장기간 산간지역에 머물러야 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많았다. 안 선교사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둘째 아이가 나에게 잘 오지 않았던 적도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만나 '아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고, 함께 있을 때는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다"고 했다.

안 선교사의 사모는 남편이 장기간 선교지를 떠나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성품과 기질까지 사용하시는 것 같다"며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크게 타지 않는 성격이어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가정은 선교사 부부가 겪는 갈등과 고립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눴다. 박민권 선교사는 "부부 갈등이 강하게 올 때가 있었다. 나중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공격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에서 공안과 정부 관계자들의 조사를 받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결국 기도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에는 사회자가 두 선교사에게 "다시 선교지로 가라고 한다면 가겠는가"라고 질문했다.

박민권 선교사는 "10번 가라고 해도 갑니다"라고 답했다. 안명수 선교사 역시 "저도 갑니다"라고 말했다.

안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이 떠나고 동료 선교사들도 다른 곳으로 가면 '이번에도 나 혼자 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 물음에 '예스'라고 하며 오늘도 내일도 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안 선교사의 사모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 행복하다. 이 길을 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이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 선교사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잠깐 만나서 '늘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며 "많은 물질이나 도움도 감사하지만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했다.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 목표액 넘어

10월 2일(금), 화씨 100도 폭염 속에도 멈추지 않은 다음 세대를 향한 동행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이 '2026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을 10월 2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목표액 45만 달러를 넘어 10월 3일 기준 총 $467,916.60을 모금했다.

올해 공개헌금의 날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시작 전부터 쉽지 않은 길이 예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GBC는 올해 목표액을 예년보다 높은 45만 달러로 정했다. 형편을 헤아려 정한 숫자가 아니라, 창립 35주년을 맞아 다음세대에게 복음의 소리를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금액이었다.

행사 당일 남가주에는 화씨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각 부스에서 섬긴 아나운서와 자원봉사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극한의 더위를 견디며 후원자들을 기다렸고, 부스를 찾은 후원자들 역시 그 더위를 무릅쓰고 직접 발걸음해 헌금을 전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부스가 문을 닫은 이후, 마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GBC를 염려하기라도 한 듯 전화와 온라인 후원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본사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온라인 후원도 이어졌다.

올해도 이례적인 장면들이 이어졌다. 많은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헌금에 동참했고, 외국인 후원자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드리던 금액보다 훨씬 큰 헌금을 드리는 후원자들이 잇따랐다. 이러한 모습에 GBC 직원들과 동역 교회 목회자 및 선교기관 대표들도 청취자와 후원자들이 보여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나눴다.

GBC는 이번 후원과 응원에 힘입어, 다음세대에게 복음의 소리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다음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역과 방송을 제작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GBC 이영선 사장은 "미주복음방송이 이 땅에서 아직 감당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복음의 소리를 다음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맡겨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개헌금의 날 특별생방송은 막을 내렸지만,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된다. 당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공개헌금은 10월 31일까지 계속 접수된다.

동참을 원하는 분들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2026 공개헌금의 날. ©GBC

한편 충현선교교회의 새일세계선교회는 1985년 8월 11일 교회 설립과 함께 선교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됐다. 1989년 10월 1일 안명수·이상희 선교사 부부를 과테말라에 첫 선교사로 파송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누적 35개 지역에 9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현재 18개 지역에서 35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충현선교교회가 파송하고 섬겨온 17개국 선교사 32명과 자녀 5명 등 총 37명이 참석해 지난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눴다.



남가주교협, 십자가 지고 그리피스 파크 오른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가 오는 10월 10일(토) 오전 7시 그리피스 공원(Griffith Park)에서 '예수사랑 십자가 기도대행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교협이 올해 교회 회복과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됐다.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며 남가주와 미국,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목 목사는 "제56대 교협의 올해 주력사업은 기도운동이었다. 10월에는 그 기도운동의 피날레로 교회 밖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대행진의 목적에 대해 김 목사는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의 사역과 선교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가 회복되고 선교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기도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LA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인 그리피스 파크 정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올라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십자가를 준비해 참여할 수 있다. 큰 나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갈 수도 있고, 손십자가나 목걸이 십자가, 종이로 만든 십자가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서재에서 김은목 목사. ⓒ 기독일보

김 목사는 "십자가를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두꺼운 종이로 십자가를 만들어 준비할 예정"이라며 "각자가 직접 십자가를 만들고 그곳에 기도제목을 적어 목에 걸고 올라가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오전 6시 30분까지 그리피스 천문대 주차장 앞 소나무숲에 집결해 준비한 뒤 오전 7시에 출발한다. 산행과 정상에서의 기도시간을 포함해 전체 일정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가벼운 겉옷과 등산화, 개인 물병 등을 준비하면 좋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피스 파크를 오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수사랑 십자가 기도대행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최훈 목사(213-700-7311)에게 하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일시: 10월 10일(토) 오전 7시
장소: 그리피스 파크 정상 주차장 앞 소나무숲
집결: 오전 6시 30분까지

팔로마한인교회 주성필 목사 취임 "행복한 목회 꿈꿔"

"목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팔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주성필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팔로마한인교회는 10월 4일 주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서명성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주성필 목사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주성필 목사는 취임 답사에서 앞으로의 목회를 향한 가장 간절한 소망으로 '행복'을 꼽았다.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기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에 가슴이 뛰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서명성 목사의 원로 추대와 자신의 취임이 함께 이루어진 데 대한 감사와 책임감을 전했다. 오랜 세월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온 서 목사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명성 목사는 이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지칠 때 힘을 주시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앞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이어 믿음의 경주는 혼자 달려온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님과 사랑하는 가족, 교우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달려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목회 중 자신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팔로마한인교회 서명성 원로목사 부부와 주성필 신임 담임목사 부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독일보

서 목사는 팔로마한인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며,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자고 권면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심규섭 목사(출라비스타장로교회)의 인도로 시작됐다. 서중노회 동부시찰장 조성대 목사(샌디에고 기쁨의교회)가 기도하고, 김호기 집사가 특별찬양을 드렸으며, 노진걸 목사(훌러톤장로교회 원로)가 로마서 12장 1~2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 목사는 성도들이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말씀과 기도에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했다.

원로목사 추대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은 해외한인장로회 서중노회장 최용성 목사(AZ열방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됐다.

최용성 목사는 서명성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를 선포했고, 최홍국 장로가 추대패를 전달했다.

축사를 맡은 심규섭 목사는 후임 목회자에게 사역을 이어준 것을 아름다운 목회의 열매로 평가했으며,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동역한 사모의 희생에도 감사를 전했다.

담임목사 취임식에서는 노회 부서기 유인선 목사(엘파소장로교회 담임)가 주성필 목사의 약력과 사역 경력을 소개했다.

주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 힘쓸 것을 서약했다. 성도들 역시 목회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감당할 것을 서약했다.

베델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로 표현하며 주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스라엘 유학과 베델교회에서의 12년 사역을 통해 준비된 주 목사가 팔로마한인교회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김 목사는 주 목사에게 말씀 준비와 성도 돌봄에는 모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부지런히 시간을 아끼며 사역할 것을 당부했다.

베델교회 목회자들은 축가로 주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예배는 서명성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서명성 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석사, 실천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팔로마한인교회를 개척했다.

주성필 목사는 중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University of the Holy Land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사랑누리교회와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 사역한 뒤, 2014년부터 2026년까지 베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다. **조셉 리 기자**

문석호 교수 출판 기념 세미나

문석호 교수의 저서 『베드로전후서 주해 및 교훈집』 출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오는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 뉴크리에이션교회에서 열린다.

'베드로 서신과 현대목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베드로전후서의 말씀을 오늘의 교회와 목회 현실에 비추어 살펴볼 예정이다. 문 교수는 전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와 교목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로버트 E. 쿨리 신학대학원 신학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 『베드로전후서 주해 및 교훈집: 흩어진 자들의 목자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의 본문을 주해하고, 그 가르침을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조명한다. 앞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문 교수는 베드로전후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뉴크리에이션교회(담임 김관중 목사)에서 진행된다. 주소는 23814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이며, 세미나 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식사가 마련된다.

문의는 뉴크리에이션교회(310-212-6369) 또는 초청인 지윤성 목사(818-624-2805)에게 하면 된다.



토랜스 선한목자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교회 가족처럼 품는 공동체 되길



토랜스 선한목자교회(이승혁 목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개최했다. ⓒ 기독일보

토랜스 선한목자교회(이승혁 목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갖고, 새로운 섬김의 일꾼들을 세우며 앞으로의 사명을 다짐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에 열린 감사예배는 이승혁 목사의 인도로 원용주 장로의 대표기도, 김현수 목사(초대 담임)의 설교, 창립 25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9-25절을 본문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9-25절을 본문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임직식에서는 안수식과 임직 공포, 축사와 권면, 답사 및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무장로와 시무권사, 안수집사 등이 임직을 받았다.

축사를 전한 팀리 목사(SBMC 담임)는 선한목자교회가 자신에게 단순한 이웃 교회가 아니라 부모님이 출석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교회라고 말했다.

팀리 목사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서로 돌보고, 서로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직받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는 것보다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곁에 서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강조했다.

권면을 전한 가스펠교회 김정호 목사는 “직분은 고난을 감당하고 책임을 맡는 자리”라며 “직분 앞에 ‘섬기는’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바란다. 섬기는 장로, 섬기는 권사, 섬기는 안수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칭찬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도 “임직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기보다 기도하고 권면하며 함께 동역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김승주 장로는 자신이 임직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닫게 됐다고 간증했다.

김 장로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내가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기도하며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직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토랜스 지역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길선주 목사가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기독일보는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를 만났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최 목사는 새벽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영성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는 새벽 설교를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자리에 남아 기도를 이어갔다 . ⓒ 기독일보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는 9월 29일 새벽예배에서 역대상 16장 23~36절을 본문으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날마다’”라며 “23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온전한 신앙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추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한다”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즉 ‘Let God be God’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했다.

34절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다윗은 모든 일이 잘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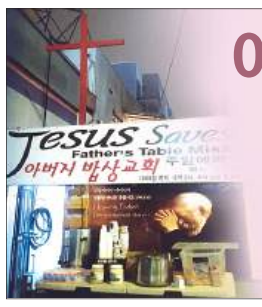
그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날마다 변한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며, 기쁠 때도 있고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도의 찬양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란다”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좋을 때에도 아멘, 힘들 때에도 아멘, 기쁠 때도 아멘, 슬플 때도 아멘 하는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eung Presbyto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센터메디컬그룹

제 5 회 시니어

골프대회

강경남 프로 주요 경력

KPGA 코리안투어

통산 12승

참가비

$200

강경남 프로 사인한 골프채와 함께하는 라운딩을 같이 할수 있는 경품

강경남 프로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 참석하게 되어 저희 쪽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1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 전원과 함께 나눕니다

이웃돕기 성금 기부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참가자 전원 식사 제공 (간단한 다과포함)

참가자격 만 64세 이상 (비시니어도 참여 가능, 단 시상 제외)

11월 2일(월) 오전 10시 샷건

LOS COYOTES COUNTRY CLUB

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888 - 847 - 3098

문의시간 9AM ~ 5PM

“북한군 포로 입국 환영… 낙태약물 도입 중단해야”

한교총, 최근 한국 각종 이슈에 목회 서신 발표



한교총 임원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입국과, 정부의 낙태약물 도입 추진, 지뢰 폭발 사고 등 최근 우리 사회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담은 목회 서신을 2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 태아 생명 보존과 ‘오는 세대’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깊은 갈등과 불신의 어둠 속에서 놓여 있다”며 “안타깝게도 사회의 아픔을 누구도 온전히 책임지려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엄혹한 현실 속에서 국민 불안과 불신은 날로 커져만 간다”고 했다.

이어 “세상의 가치관이 요동치고 국가의 기본 원칙과 헌법 정신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와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우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입국과 관련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유의사를 따라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온 북한군 포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북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유기적인 협력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교총은 “더불어 한국교회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세 분의 선교사들이 조속한 시일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전향적이고 인도주의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치권 또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선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두 손을 모아달라”며 “청년들의 고귀한 헌신과 국가안보는 어떤 정치적 셈법으로도 가려지거나 축소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평화와 화해의 가능성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도 반목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기도와 섬김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의 낙태약물 도입 추진과 관련해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낙태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앞서 태아와 임산부를 함께 보호할 법적·의료적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생명보호 체계에 앞선 낙태유도 약물의 제도적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정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도 말로만 생명을 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생명과 가정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은 필요하지만, 공공성이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개방이사 비율 확대 입법을 재고하고, 기독사학이 건학이념과 성경적 가치에 따라 ‘오는 세대’를 바르게 교육할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그동안 세상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 갈등을 키우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배제했던 연약함을 자복한다. 우리는 갈등의 한편에 서서 적대를 키우는 자가 아니라,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며 치유하는 화해와 국민통합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의 아픔과 갈등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는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골방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달라”며 “한국교회도 먼저 낮아지고 섬기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디지털에 지친 크리스천, 아날로그 영성 찾는다

➔1면 기사 〈아날로그 영성〉에 이어서 그러면서 “느리더라도 깊은 묵상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몸을 사용해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영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목회자들은 디지털 방식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콘텐츠 소비처럼 변한다’(29%)는 데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동체 소속감이 약해지고’(21%), ‘실제 삶의 변화와 훈련으로 이어지기 어렵다’(19%)는 등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목데연은 “결론적으로 디지털 중심의 신앙생활은 성도가 콘텐츠 소비 자체에 만족하게 만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약화와 교회의 침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날로그 영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로 목회자와 성도 모두 ‘현장예배의 깊이·집중도 강화’(목회자 67%, 성도 56%)와 ‘소그룹 활성화’(65%, 35%)를 1·2순위로 꼽았다.

다만 차순위에서는 목회자가 ‘기도 훈련’(18%)과 ‘예전적 예배’(18%) 등 대내적 신앙 강화에 집중한 반면, 성도는 ‘이웃 봉사와 섬김’(29%)을 높게 응답했다. 목데연은 “아날로그 영성이 교회 내부를 넘어 이웃을 향한 현장 실천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대를 드러낸다”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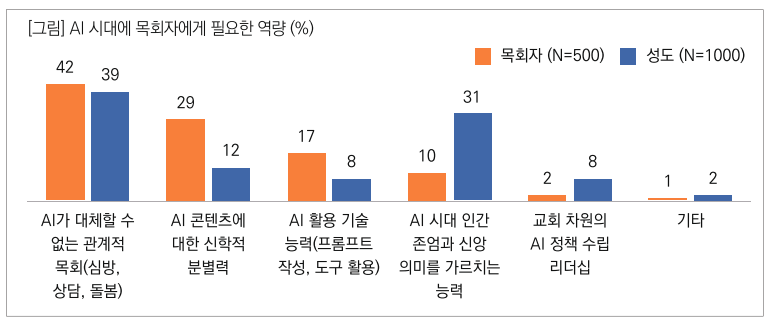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해석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면서도, 그 말씀(설교)이 자신의 실제 삶-불안과 상실, 인간관계 등-에 구체적으로 닿길 원한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목데연은 “이러한 흐름을 ‘구속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복음을 깊게 전하되 삶에는 가깝게 다가가는 설교가 한국교회가 요구받는 새로운 설교 방향”이라고 했다.

목회자는 주로 전하는 설교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설교’(66%)와 ‘삶의 방향과 도전, 결단을 제시하는 설교’(50%)를 각각 1·2위로 꼽았다.

반면 성도는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설교’(39%) 외에도 ‘복음으로 이어지는 설교’(37%), ‘결단을 제시해 주는 설교’(36%) 등 다양한 설교 주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가 지향하는 설교와 성도가 선호하는 설교 모두 1위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설교’(목회자 45%, 성도 41%)였으며, 2위는 ‘공감과 위로가 느껴지는 설교’(23%, 30%)였다. 목데연은 “진정성이 담긴 말(설교)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시대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역량 (%).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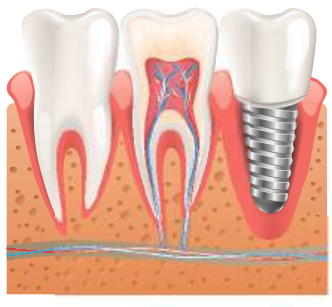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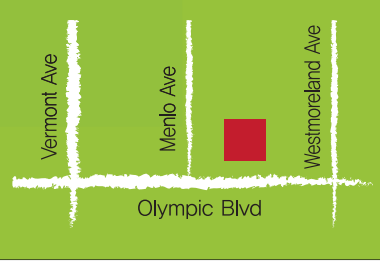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에스더 이 원장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엄마는 괜찮아

그 한마디는 몸이 아파도
자식이 걱정할까 봐 건네는
엄마의 작은 거짓말이자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SMG는 잘 알기에,
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의 불편함도 없도록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에즈라 진 목사 "266일 구금 중 하나님 말씀으로 견뎌"

美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 갖고 구금 당시 경험과 신앙 고백 나눠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설립자인 에즈라 진 밍리 목사가 중국 당국에 266일간 구금됐던 당시의 경험과 고난에 대한 신앙적 성찰을 공개했다.

진 목사는 최근 미국 성경박물관에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인터뷰를 갖고, 광시성 베이하이 제2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이 고난을 견디게 한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금 첫날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며 "'주께서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셨으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회고했다.

진 목사는 2025년 10월 10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2018년 안면인식 카메라 설치를 거부한 시온교회를 폐쇄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회를 압박해 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10여 개 도시에서 목회자와 교인 등 약 30명이 체포됐으며, 중국 도시 가정교회에 대한 대규모 단속으로 평가됐다.

진 목사는 '정보통신망 불법 이용'과 이후 '불법 경영' 혐의로 기소돼 수감됐다. 그는 수십 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비좁고 열악한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성경과 예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암송한 말씀에 의지해 기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24시간 일정이 모두 정해져 있어 소리 내어 기도할 수도 없었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해야 했다"며 "초기에는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두 달 뒤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성경을 전달받은 진 목사는 시편과 바울서신, 베드로전서를 통해 큰 위로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첫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는 분석하고 묵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은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한 말씀으로 찾아온다"며 "며칠 동안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겪는 고난은 부정적인 고난"이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2026년 7월 3일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이송됐지만, 실제로는 공항으로 이동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문제를 논의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가족과 재회하고 한 달 된 손자 에즈라를 처음 만난 순간을 회상하며 이를 "기적적인 구출"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자신이 요나처럼 깊은 고난에서 갑작스럽게 구출됐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자신의 석방이 중국과 미국 간 어떤 합의의 결과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는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9월 현재 시온교회 소속 왕린 목사, 가오잉자 목사, 왕중 장로, 인후이빈 목사, 류전빈 목사, 린수청 목사, 왕충 목사, 우추위 등 8명이 광시성 베이하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목사는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내가 겪은 일을 보고 특별히 용기를 얻고 있다"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붙드실 수 있다"고 말했다.



에즈라 진 목사. ©The Christian Post

"중국 교회, 박해 속 성장…100배의 부흥 보게 될 것"

한편, 진 목사는 중국 당국에 구금된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의 석방을 촉구하며, 박해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목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기를 기도한다"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선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지난 7월 266일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보내져 가족과 재회했다. 그러나 현재도 시온교회 소속 가오잉자, 왕린, 인후이빈, 왕중, 왕충, 류전빈, 린수청, 우추위 등 8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상태다.

그는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며 "우리는 국적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의 지체"라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중국 당국의 탄압이 오히려 시온교회의 전국적인 확장을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중국 당국이 교회 예배당에 안면인식 카메라 24대를 설치하도록 요구했지만 교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교회는 폐쇄됐다. 이후 진 목사는 교인들에게 공원이나 주거지역에서 함께 걸으며 설교를 듣고 복음을 나누며 예배하도록 독려했다. 그는 이를 '워킹 워십(Walking Worship)'이라고 불렀다. 이 방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 사역으로 발전했다. 시온교회는 중국 내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예배를 시작했으며, 참여자는 약 300명에서 5,000명까지 증가했다. 일요일 예배에는 때때로 1,000명 이상의 목회자가 참여해 격려를 받기도 했다고 진 목사는 전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위해 방문팀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약 3년 동안 중국 40여 개 도시에서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중국 교회가 장기간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49년 중국 공산당 집권 당시 약 70만 명에 불과했던 중국의 개신교 신자가 현재는 미등록 교인을 포함해 약 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진영 기자

"군의 경계근무 태만은 국가 안보의 큰 위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군부대에서 소위 '빈총 경계'가 발생한 것을 비판하며 철저한 안보 정신을 강조했다.

언론회는 "지키는 자의 수고만이 확실한 안전을 보장한다, 군의 경계근무 태만은 국가 안보의 큰 위험이다"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최근 우리나라 군대의 전방 근무에서 발생한 '빈총 경계' 태세가 일파만파"라고 했다. 이들은 "경계병이 총에 '삽탄'(揷彈) 없이 전방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신적 해이성(解弛性)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군대를 다녀왔거나,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낄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서부전선을 지키는 1군단은 '빈총 경계'로 당시 군단장이 직무배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 없다"며 "올해 초 '위병소 삼단봉 경계' 논란을 빚은 3군단장은 오히려 대장으로 진급하여, 모든 전방 경계의 총지휘관인 지상군작전사령관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는 사이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면서, 심지어 우리 MDL(군사분계선)을 50여 차례 드나들면서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이 부상을 당했다.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물으며 "현 대통령은 2016년 '작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되어도 경계 실패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국군통수권자로서, 경계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었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방의 경계를 책임진 각 군단들이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에 삽탄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섰는데,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지상군작전사령부나 합동참모본부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국방부의 조사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방의 경계 작전 지침은 당연히 총에 삽탄을 하고 근무를 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런 '빈총 경계 근무'가 하필이면, 김정은이 '적대국 두 국가'로 지정한 2023년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투옥된 기독교인 위해 목소리 내야



제3회 글로벌 종교 자유 포럼에서 에즈라 진 목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CDI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최근 중국 감옥에서 석방된 에즈라 진 목사가 미국에서 열린 종교 자유 포럼에 참석해 중국 내 기독교 박해 실태를 고발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연대를 촉구했다고 9월 29일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침례대학교 내 K. 랜들 에버렛 글로벌 종교자유센터 주최로 열린 제3회 글로벌 종교 자유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 에즈라 목사는 "여전히 중국 전역에 150명 이상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투옥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들이 잊히지 않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 목사는 중국 당국의 독립적인 기독교 예배 단속 과정에서 자택에서 전격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수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연행되는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국 백악관의 직접적인 개입과 국제사회의 압박 덕분에 최근 극적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외부의 관심과 행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목사가 2007년 설립한 베이징 시온 교회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1500명 규모로 성장한 대형 가정교회다. 당국은 교회 건물주를 압박해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배 중 공안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핍박을 가했다. 특히 2018년 당국이 예배당 내부에 24시간 안면 인식 카메라 설치를 요구한 것을 교회가 거부하자, 1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체포 직후 진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수천 명이 참석하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정보 네트워크 불법 사용 혐의를 받았다. 진 목사가 해당 법률이 해킹 등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 측은 교회 운영에 사용된 교인들의 헌금을 문제 삼아 사기 및 불법 경영 혐의로 기소 내용을 즉각 변경했다.

중국 법률상 50만 위안 규모의 헌금 수수는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진 목사는 다년간 교회가 받은 헌금 규모를 고려할 때 평생 수감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으나, 신앙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 당당히 맞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포럼에서 진 목사는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통제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것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했기에 가정교회 탄압이 더욱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이 아닌 복음을 둘러싼 영적인 전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인권이 결여된 중국의 부상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진 목사는 서방 세계가 경제 성장에 치중해 인권 문제를 등한시했던 과거의 외교적 태도를 지적하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억압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서방 교회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녹스 템즈 글로벌 종교자유센터 전무이사는 전 세계 인구 대다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진 목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중국의 위구르족 무슬림을 비롯해 이란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종교적 박해 사례를 언급하며, 억압적인 법률 철폐와 투옥된 종교인 석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다니엘 최 기자

인도 차티스가르주 교회 비기독교인 출입 경고문 부착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담타리 지역의 교회들이 비기독교인의 출입 시 법적 책임은 방문자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일제히 부착했다고 9월 30일 보도했다. 이는 주 정부가 최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개종 금지법을 시행함에 따라,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허위 고발과 당국의 표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계가 내놓은 방어적 조치다.

담타리에 위치한 125년 역사의 순데르간지 메노나이트 교회 외부에는 비기독교인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내용의 힌디어 경고판이 설치됐다. 인근의 '하나님의 교회' 역시 예배 참석은 기독교인으로 제한되며 법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담타리 지역 기독교 포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관내 10곳 이상의 교회가 유사한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교 포럼 측은 약 한 달 전 관련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5일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이를 관내 교회 및 기도처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월 차티스가르주에서 공식 발효된 '2026 차티스가르 종교 자유법'의 영향으로 촉발됐다.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주도로 도입된 이 법안은 강요나 사기, 유인 등에 의한 종교 변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계는 이 법이 인도 기독교 박해를 합법화하고 소수 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개종 금지법에 따르면 불법 개종 적발 시 7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최소 5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종 대상자가 미성년자, 여성, 또는 인도 헌법이 보호하는 소외 계층일 경우 형량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2명 이상의 집단 개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힌두교로 인식되는 '조상들의 종교'로 회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시행 이후 담타리 지역 목회자들은 살해 협박을 받는 등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의 한 목회자는 신변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이아몬드 필루스 담타리 기독교 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안내문 부착이 부당한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하며, 우익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예배당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목회자를 허위로 고발하는 등 예배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T는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표적 수사와 허위 고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담타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정 관청에 자발적 예배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포럼 측에 따르면 현재 담타리 주요 행정 관청에 1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자체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펜실베이니아, '학부모에 학생 성별 정체성 비공개' 정책 철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교육기관이 학교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이름과 대명사 변경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했던 정책을 철회했다.

보수 성향 법률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부모의 교육·양육 권리와 교직원의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기관 측은 정책 검토와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해당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카운티 중간교육단위(Chester County Intermediate Unit, 이하 CCIU)가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정책 103.2를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하 ADF)과 독립법률센터(Independence Law Center, 이하 ILC)가 CCIU 측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뤄졌다. 두 법률단체는 브랜디와인 버추얼 아카데미와 관련된 의뢰인을 대리해 지난 5월 CCIU에 서한을 보냈으며, CCIU는 9월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비순응적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대명사에 대해서도 학생이 요청한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상황을 허용했다.

ADF와 ILC에 따르면 CCIU는 학교에서 학생이 성별 정체성을 변경했는지에 대해 학부모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학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이들은 밝혔다.

법률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이 요청한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교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교직원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ILC의 랜들 웬거 수석 법률고문은 "학교가 자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며 정책 철회를 환영했다.

이번 정책 철회에는 최근 미국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과 학부모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영향을 미쳤다. ADF와 ILC는 2026년 연방대법원의 미라벨리 대 본타(Mirabelli v. Bonta) 사건 판결을 근거로 CCIU의 정책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학교가 학생의 성별 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정책과 관련된 사건이다.

CCIU 대변인은 "정책 폐기는 이사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이며, 트랜스젠더 학생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쉘 기자

성경 번역 가속화… 전 세계 807개 언어로 성경 전권 제공



ⓒWycliffe Bible Translators

성경 번역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전 세계 8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 전권이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번역선교단체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는 최근 발표한 '성경 현황(State of the Bible)'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성경 번역 작업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번역의 날인 9월 30일에 맞춰 공개됐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전권이 28개 언어로 새롭게 번역됐으며, 이는 한 해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약성경도 70개 언어로 완역됐다. 전체적으로 98개의 성경 또는 신약성경이 새롭게 출간됐다.

완역된 성경이 있는 언어는 현재 807개로 늘어났으며, 약 62억 명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 전권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위클리프는 약 1억100만 명이 처음으로 모국어로 성경 전권을 읽을 수 있게 됐으며, 2,900만 명은 신약성경을 새롭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성경이 전혀 없었던 87개 언어 공동체에도 성경 일부 또는 성경 이야기가 제공됐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약 20%는 여전히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 전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 가운데 아직 번역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언어가 543개라고 밝혔다. 이는 5년 전 약 1,900개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현재 전 세계 약 7,400개 언어 가운데 4,414개 언어에서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성경 전권이 번역된 언어는 807개이며, 신약성경은 1,844개, 성경 일부는 1,519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제임스 풀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대표는 번역 작업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번역된 성경의 숫자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전달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다는 점에서 성경 번역의 진전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결과 삶과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번역을 마친 성경 가운데는 케냐의 마라크웨트어 성경도 포함됐다. 마라크웨트 공동체는 2012년 신약성경을 먼저 번역했으며, 당시 성경의 일부만 번역됐다는 의미로 벌집의 절반을 축하 행사에서 들어 올렸다. 14년 뒤 완역된 성경 출간식에서는 완전한 벌집이 등장했다.

카메룬의 바문카어와 음멘어, 필리핀의 타가카울로어, 세네갈의 사피사피어 등에서도 지난 1년간 신약성경 번역이 완료됐다.

청각장애인 공동체를 위한 성경 번역은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어는 383개에 달하지만, 성경 전권이 번역된 수어는 미국수어(ASL)가 유일하다. 106개 수어에는 성경 일부가 번역됐으며, 영국수어(BSL)를 포함한 249개 수어에서는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는 약 500만 명의 농인 및 난청인이 있으며, 지난 7월 에티오피아수어로 239개의 성경 이야기가 완성됐다.

이미경 기자

서방 기독교 지도자들, "대격변 다가온다"… 교회 영적 각성 촉구



스티브와 에스더 우팔 ⓒYouTube/AllNations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영국 등 서방 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인 대격변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기독교계에 강력한 영적 각성과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고 9월 29일 보도했다.

기독교 지도자인 스티브 우팔과 에스더 우팔 부부는 지난 9월 4일 '리바이벌 타임스(Revival Times)'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통해 서방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긴급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서방 교회가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맞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강렬한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스더 우팔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는 대격변(major disruption)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으며, 신의 목소리에 교회가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반문하며 현 기독교계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에스더는 최근 몇 달 동안 파괴적인 강풍이 불고 거대한 쓰나미가 사람과 장소를 덮치는 꿈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단순한 자연재해의 예고가 아닌, 현재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의 영적 위급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스티브 우팔 역시 다가올 대격변이 전염병과 같은 의료적 위기일지, 시민 소요 사태일지, 혹은 경제 붕괴나 타국의 침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가올 재난의 형태보다 서방 교회가 보여주는 심각한 영적 무감각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티브는 기독교인들이 눈앞의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한 채 몽유병자처럼 걷고 있다며,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메시지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절박한 부르심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브는 어린아이가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걸어가는 위험한 상황을 예로 들며, 부드러운 경고만으로는 부족한 중대한 시기임을 역설했다.

스티브는 최근 서방 교회를 향해 "전시 체제와 같은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현재 치열한 영적 갈등 속에 놓여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함을의미한다. 그는 현재가 휴가철이나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고 선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안락함을 버리며 모든 자원을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팔 부부는 대격변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응으로 '기도'를 제시했다. 에스더는 성경 속 에스더 4장 14절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기독교인들이 바로 지금 이 긴박한 시기를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최 기자

아프리카 의료 인력난 심화 소명 의식 갖춘 리더십 절실



플로렌스 무인디 박사 ⓒCDI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대륙이 보건 전문가 양성에 있어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보건 인력 수급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단순히 의과대학을 늘리는 물리적 확장을 넘어 뚜렷한 소명 의식과 도덕성을 갖춘 전인적인 아프리카 의료 리더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현지 기독교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9월 29일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평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약 585만 명의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WHO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역 보건 인력은 2013년 160만 명에서 2022년 약 51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약 4000개의 보건 교육 기관에서 매년 25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훈련받은 보건 의료 전문가 약 100만 명이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아프리카 보건 장관들은 보건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35년까지 300만 명의 추가 의료 종사자를 훈련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의사이자 기독교 구호 단체 '풍성한 삶(Life in Abundance)' 설립자인 플로렌스 무인디 박사는 이러한 상황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아프리카 복음주의 연맹(AEA) 보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무인디 박사는 양적인 인력 충원 이전에 기관들이 배출하는 전문가들의 성품과 기독교 리더십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은 리더십 부 재와 부정부패 제도적 역량 부족을 아프리카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38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정부의 의료 및 인프라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난 1년간 아프리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22%가 진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뇌물을 지불했다고 답해 의료 현장의 구조적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무인디 박사는 이 같은 사회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간호사와 의료진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기독교 기반 보건 훈련 기관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말라위의 기독교 보건 협회 연계 대학들이나 우간다의 간호 교육 기관 케냐의 AIC 캅소와르 의료 훈련 대학 등은 국가 전체 의료 인력 양성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인디 박사는 일부 기독교 교육이 신앙과 직업적 삶을 별개로 취급하는 이원론적 접근법을 취해 온 것이 아프리카 의료 현장의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직장 생활과 분리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모두에서 변함없는 청렴성을 발휘하는 전인적인 기독교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니엘 최 기자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I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Representing Family Owned & Operated Funeral Homes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제3회 보나 뮤직 한국동요 대회

한국 가곡과 동요를 미주 사회에 널리 소개해 온 비영리기관 보나뮤직(대표 이혜자)이 제3회 보나뮤직 한국동요 부르기 대회를 10월 10일(토) 오후 3시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에서 개최된다.

동요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접하고, 한국어와 한국적 정서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보나뮤직(BONA_Music)이 주최하고 해치빌리지,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As we gather Inc., 남가주한국학원이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이며, 타인종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독창과 중창(최대 12명)으로 나뉘며, 각 어린이는 한 중창팀에만 참가할 수 있다.

대회 당일 심사 후 현장에서 즉시 시상식이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보나뮤직 한국 동요 부르기 대회
일시: 10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미주평안교회
문의: 714-476-6448, 213-300-7214, bonaalee12@gmail.com

리버티 파크 보험 마케팅 시니어 서비스 강화

종합 보험 전문 기업 '리버티 파크 보험 마케팅(Liberty Park Insurance Marketing Inc., 대표 제이 박)'이 2027년도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을 앞두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전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리버티 파크 보험 마케팅은 시니어 고객들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시니어 전담팀을 구축했다.

전담팀은 LA 본사를 비롯해 가든그로브·풀러턴 등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윈티어 및 동부 LA 지역까지 전 남가주를 아울러 일대일 밀착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2027년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Part C), 처방약 플랜(Part D), 메디케어 보충보험(Supplement)의 혜택 및 비용 변경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준다. 이를 통해 각 시니어의 개인별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주거 지역 및 경제적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플랜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버티 파크 보험은 시니어층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자산 보호를 위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윌셔 P&C 일반 종합보험팀'과의 협업을 통해 시니어 맞춤형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 상담을 연계 지원하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반 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리버티 파크 보험 마케팅의 제이 박 대표는 "지난 40여 년간 한인 동포사회와 쌓아온 깊은 신뢰가 리버티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메디케어 및 각종 보험 제도를 시니어분들께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최대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메디케어 가입 및 보험 관련 상담은 아래 지역별 전담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리버티 파크 보험 마케팅 제이 박 대표

지역별 주요 상담 및 문의 연락처

* LA 일반 종합보험팀: 213-380-0249
* 오렌지 카운티 메디케어팀 (오렌지 지점): 714-403-3709 (수잔 김 / Susan O Kim)
* 가든그로브 (Garden Grove) 지역: 714-614-1795 (홍주식)
* 풀러턴 (Fullerton) 지역: 818-913-1928 (테리 정 / Terri Chung)

거리 개방 행사...LA 주요 도로 차량 통제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거리 개방 행사 시클라비아 '하트 오브 LA(Heart of LA)'가 오는 10월 11일(일) 개최된다.

특히 행사가 주일에 열리면서 오전 예배 시간과 맞물려 LA 도심 지역 교회와 교인들의 차량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클라비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운타운 LA를 비롯해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아츠 디스트릭트, 보일하이츠, 에코파크를 연결하는 약 6.5마일의 도로를 차량 없는 거리로 개방한다. 행사는 걷기, 자전거, 스케이트 등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행사다.

오전 9시에서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고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회로는 시클라비아 홈페이지(ciclavi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량 통제가 이뤄지는 주요 도로는 다음과 같다.

2nd St.: Glendale Blvd ~Broadway
Glendale Blvd: 2nd St.~Bellevue Ave
Bellevue: Glendale Blvd~Echo Park Ave
Broadway: 2nd St.~Bernard St.
1st St.: Broadway~Alameda St.
S. Central Avenue: 1st Street~6th Street
6th St.: S. Central Avenue~Whittier Blvd
Whittier Blvd: E. 6th St.~S. Boyle Ave.
S. Boyle Ave.: Whittier Blvd~S. St. Louis St.
S. St. Louis St.: S. Boyle Ave.~1st St.
1st St.: S. St. Louis St.~S. Boyle Ave.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날마다 말씀 묵상의 산에 오르십시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산에 오르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낮은 곳에서는 크게 보이던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작아 보입니다. 또한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높은 곳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올라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의 산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우리에게 《묵상의 산에 오르라》고 권면합니다. 묵상의 산에 오르면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깊이 읽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빨리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기억은 진리를 보관하는 그릇과 같지만, 묵상은 진리를 맛보는 미각과 같습니다. 기억은 만나를 보관하는 언약궤와 같고, 묵상은 그 만나를 실제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씹고 삼키고 소화해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한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묵상한 말씀을 기도로 올려 드릴 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시 119:97). 말씀을 사랑하면 깊은 관심을 갖고 거듭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게 됩니다.

다윗이 말씀을 종일 묵상한 것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생각하듯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에는 반복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었다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한 번 읽었다고 다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읊조려야 합니다.

망치가 못을 한 번 두드린다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두드릴 때 못이 깊이 박힙니다. 말씀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암송과 묵상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저장한 말씀에서 생명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됩니다(엡 6:17).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음에 간직하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이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 줍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낙심의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줍니다. 묵상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따뜻하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마음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풀무와 같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시 39:3). 묵상하면 말씀이 불이 됩니다. 차가운 지식이 뜨거운 사랑이 됩니다. 말씀이 찬양이 됩니다. 약속이 소망이 됩니다. 또한 묵상은 기도를 풍성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묵상은 기도의 샘을 열어 줍니다. 묵상은 기도의 등불에 공급되는 기름과 같습니다. 묵상은 마음 안에 거룩한 생각을 채우고, 기도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합니다. 묵상이 선두에서 길을 열면 기도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저는 아침 묵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침은 하루의 첫 열매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은 묵상의 황금 시간입니다. 다윗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시 119:147)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 문제가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말씀이 하루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음부터 많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의 목적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묵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묵상은 경건의 생명이고, 실천은 묵상의 생명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의 산에 오르십시오. 그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는 말씀을 품고 내려오십시오. 말씀의 향기를 품고 내려오십시오.

신성욱 칼럼

마음을 지키는 지혜



신 성 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콜로라도 주 한 봉우리에 있는 거대한 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나무는 400여 년간 살아오면서 무려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까지 다 이겨낸 나무로 유명하다. 그토록 강했던 나무가 어느 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딱정벌레가 나무 속을 파먹어 버렸기 때문이란다.

그토록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벼락과 폭풍을 견뎌온 그 거목이 정작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지고 만 것이다. 기나긴 세월 외부의 거센 도전에도 시들거나 죽지 않고 버텨온 그 거목이 내부의 작은 딱정벌레들은 견디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다. 무엇을 말하는가? 외부 적과의 싸움에선 이길 수 있더라도, 내부의 적은 상대하기 벅차다는 말이다.

쇠를 보라. 쇠를 부서뜨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강한 쇠도 녹이 안에서부터 갉아먹으면 금세 닳거나 부러지고 만다. 사람도 쉽게 정복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진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올 권한을 내어줄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마음은 우리를 방어하고 지키는 요새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 요새를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말라. 모든 의심을 내려놓으라. 두려움도 마음에 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라.

외부의 적은 싸워 물리칠 수 있지만, 내면의 부패는 소리 없이 진행된다. 쇠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녹이 안에서부터 야금야금 쇠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말을 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우리의 마음은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 쌓아 두는 창고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맡기신 성소와 같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예를 하나 생각해 보자.의학자들은 고혈압을 가리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다치면 누구나 즉시 병원으로 달려간다. 아프고, 피가 나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압은 다르다. 아무 통증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혈관 속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인사하시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된다. 하지만 사실 그 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큰 시련이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더 붙든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런 큰 사건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서운함, 오래된 불신, 풀지 못한 오해와 같이 사소한 것일 때가 많다. 그것들은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꼭 기억해 둘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국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빌 1:6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우리 마음을 처음 만지신 분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우도록 내어드리자.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4기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성경필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신청방법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6년 11월 6일 (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6년 11월 13일 (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6년 11월 20일(토) 오전 10:30 LA 장로교회 (한현종 담임목사)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장학금 전달식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새라 김 칼럼

학부모 권리와 정면 충돌한 캘리포니아 학군…법정 공방 이어져



새라 김 대표
TVNEXT.org

학부모들의 자녀 수업 불참 요청 거부, 미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LGBTQ Pride 퍼레이드 관련 수업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학군에 소송을 제기한 멋진 학부모들!!

학부모들에게 또다시 맞선 황당무개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판결

캘리포니아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몰몬교 부부가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군이 약속을 어기고 잘못된 내용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들이 종교적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수업을 들어가지 않겠다는 Opt-Out Form을 이미 학교에 냈으며,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2025년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소송에서도 대승리를 안겨준 판결에 힘입어 학교에서도 Opt-Out Form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뒷배경

사실상,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6년에 셜리 웹버(Shirly Weber, 민주당) 의원이 제출하고, 수많은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마지막 서명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B329 (CHYA)라는 듣기에는 세련된 보건 및 성(젠더)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우리 자녀들은 나이에 매우 부적합한 동성애 성관계를 비롯한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보건, 건강" 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Opt-Out(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키는 신청서) 허용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Sex Ed(성교육)에는 허용됐지만, 정작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LGBTQ 관련 성교육은 "Health & Sex Ed"라는 명칭 아래 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학군에 따라 법의 애매모호한 허점을 이용해 의무화하는 학교들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미연방 대법원에서 현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성별의 정의(남성과 여성, 2개의 성별만 있다는 정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자녀양육 권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한줄기 소망의 판결이며, 10년 만의 대승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가주 써니베일 학군의 학교는 그들이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입장을 번복하며, 그 이유는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캘리포니아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황당무개한 선언을 했습니다.

CA 북가주 써니베일(Sunnyvale) 학군들이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Sunnyvale 학군이 가르치는 교육 과정 및 내용들은 단순한 부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써니베일 학군들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교육청(Santa Clara County Education Department)의 교육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이 지침은 거의 모든 교과와 모든 학년에서 LGBTQ+ 교육을 접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실제 수업 내용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1. 학생들의 생물학적인 교육을 해주는 보건(Health & Sex) 수업에서는 생식 과정을 가르칠 때 교사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사람"의 '난소'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2. 4학년 역사 수업에서는 역사 속의 가족 구성을 가르치면서 "Two Spirit and Non-Traditional Family": '두 영과 비전통적 가족'이라는 내용이 가르쳐졌는데, 이 내용은 옛날 토착 원주민들을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의 영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의 트렌드 사상을 이용하여 '원주민'이라는 겉모양을 이용했으나, "두 개의 영과 가족 구성"이라는 문장은 절대 넘어갈 문장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 TVNEXT처럼 오랫동안 정책과 법안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사람들에게는 앞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어떤 반성경적인 가족 구성과 결혼관 등이 반기독교 진보 정책가들 쪽에서 나올지 깨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런 수상하고 혼란스러운 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한 학부모들에게 돌아온 카운티 교육청 측의 표현은 간단했습니다. 써니베일 학군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뒤엎기 위해 고안된 내용'이라고요.

3. 심지어 수학 수업에서도 성 중립 화장실과 동성 결혼을 주제로 한 문제 풀이를 구성하도록 지시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 영어 수업에서는 이미 현 트럼프 정부에서 아이들 연령에 맞지 않는 책들이라고 금지(banned)시킨—어른들이 봐도 당혹스러울 정도의 적나라한 성적 표현들과 그림들이 담겨 있는—책들까지 수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아래와 같이 밝혀졌습니다. 컴벌랜드의 추천 도서 목록에는 미연방 대법원이 '마흐무드' 사건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된 동화책 중 몇 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나눕니다. 아래는 3~4세 아이들이 보는 책들입니다.

『P for Puppy 프라이드 퍼피』

참고: 드래그 퀸(Drag Queens)이란 남성들이 여성 드레스를 입고 공연하는 공연자들로, 주로 LGBTQ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프린스 & 나이트』는 동화 이야기:

윗사진: 『드래그 퀸의 엉덩이가 스위쉬, 스위쉬, 스위쉬』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노래·동요 내용을 윗 책에 그려진 드래그 퀸들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재창작한 것으로, 이 책을 쓴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드래그 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캘리포니아주 법정 판결에 대해 수많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구봉주 칼럼

겸손의 일상 생활화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정은 사람과의 관계나 서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이란 가치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모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우자.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를 힘쓴다. 즉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서로 종이되며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순복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의 생활이다. 지혜에 있어서나 재능에 있어서나, 혹은 받은 바 신령한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사람을 낫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마음속의 참겸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자신은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다. 이러한 사람은 오직 "오, 주여 당신을 찾으려고 나는 나 자신을 버렸사오니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케 마옵소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서야 비로서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을 끊어 버리고 모든 사람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삶으로 드러나는 겸손
서로를 높이는 겸손

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생각하게 된다. 어떤 신실한 종은 주인보다 더 지혜로울런지 모른다. 그러나 신실한 종이라면 역시 종으로서 마땅한 정신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우러러보며 그들을 존경하고 섬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리스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작은 자 즉 다시 말하면, 피차의 종이 되는 것을 만족케 한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과 존경 받음을 볼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른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자기는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다. 이는 그가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그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존귀를 구하지 않으신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료들의 실수와 죄를 보고 날카로운 말로 책망하고픈 유혹을 받을 때에도 겸손한 사람은 "서로 참으며 서로 용서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같이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임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주 예수를 옷입어야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포로 송환,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닌가”



▲관련 보도 화면. ⓒKBS

북한군 포로 2인 한국 송환 이후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 간의 비공개 요청 관련 공방이 격화되면서, 북한인권운동가들과 국내 탈북민들은 이후 북한군 포로와 제3세계 체류 탈북민들의 한국행이 어려워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상임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베드로 목사는 “두 사건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2인을 강제북송했던 때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었느냐”며 “청와대가 당시의 노선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 2인을 북송하려고 비공개 요청을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진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통일한국 이사장 강동완 교수(동아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 비난 SNS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천 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포로 2인을 대한민국에 보내줬다”며 “가장 인도적 조치였고, 이를 통해 포로 2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동완 교수는 “북한군 청년 백청강·리강은 2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20개월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살려 달라. 도와 달라’고 외쳤다. 그들은 북송되면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 신변도 보장하기 어려웠다”며 “그들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었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식 이슈화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정부를 향해 촉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들 신변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들을 국제사회 앞에 공개하는 것이 가족들의 신변까지 보장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5월 북한군 포로들을 만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포로 2인의 국내 송환이라는 좋은 성과를 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마찰이 있어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장세율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포로 문제에서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보다 포로가 3배 많고, 영토를 20% 가까이 빼앗기면서 많은 실종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북한군 포로 2인 송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제법에 따른 원칙대로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우리나라로 송환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포로들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지켜주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사전에 한마디만 하고 공개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 가운데 용단을 내려줬는데, 너무 자존심을 세우고 비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포로들에 대해 박해 위험을 감안하는 등 송환 이후에도 책임이 있는 국가”라며 “어쨌든 잘 마무리되고 이러한 성과들이 북한 주민들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 세계 탈북민들에게 잘 알려져 더 많은 생명권과 자유권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탈북민 출신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국가인권위원회 전 인권위원)은 “송환 사실 공개를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맞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언론인이 바라본 북한선교, 성경적 해답은 무엇인가?



제14회 바이어하우스학회 정기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라스베가스중앙교회

제14회 바이어하우스학회(회장 이동주 교수) 정기 심포지움이 10월 2일 서울 용산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관에서 ‘언론인이 바라보는 북한선교, 성경적 해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 오전 1부에서는 김관상 전 C채널 회장이 ‘언론인이 바라본 북한(통일) 선교, 무엇이 문제인가: 주류 언론 보도 행태 분석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관상 전 회장은 “언론 보도에 ‘북한선교’ 키워드가 등장한 것은 1990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 남북 종교계 교류가 시작될 때였다”며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천주교·개신교·원불교 등 여러 종교 기관에서 북한선교 준비 또는 행사 소개가 다뤄졌고, 종교계 지도자가 ‘북한선교’ 관련 직책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키워드로 노출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김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는 개신교 교단의 적극적 북한선교 활동과 달리, 민간단체 차원의 민간 교류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면서 관심도가 하락해 보도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급격히 축소돼, 이제 일반 언론 지면에서 관련 키워드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주류 언론은 북한(통일) 선교 기사를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보도에는 ‘공정성·중립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 분포도 다양해 종교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화부 내 종교 담당기자의 위상은 문화부의 위치와 함께 매우 보도국이나 편집국에서 낮기에, ‘북한(통일)선교’ 기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북한(통일) 선교 보도 비중 제고 방안에 관해선 “북한(통일) 선교와 미디어 선교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며 “북한(통일) 선교나 미디어 선교도 끝없는 길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후 2부에서는 국민일보 기자 출신 유영대 대변인(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이 ‘기독교 언론과 SNS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인식: 분단 80년, 복음·평화·화해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새로운 통일선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영대 대변인은 “기독 언론은 통일선교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지만, 앞으로는 사실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보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 행사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어떤 교회가 탈북민 가정을 초청해 명절 식사를 함께했다면, 단순 사실 소개를 넘어 초청 후 교회와 탈북민의 관계 변화, 탈북민 자녀의 교회학교 정착 여부, 남한 성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추적하면서 지속적 관계로 발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한국교회 통일선교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어떤 교회는 북한인권을 강조하고, 다른 교회는 평화와 교류를 강조한다. 또 어떤 단체는 탈북민 정착을 중심에 두고, 다른 단체는 북한 지하교회와 복음 전파를 주요 사역으로 삼는다”며 “언론의 역할은 어느 한쪽을 승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그가 무엇을 우려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 관련 콘텐츠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이나 영상, 오래된 사건을 현재 사건처럼 소개하는 콘텐츠, 과장된 탈북민 증언, 확인되지 않은 북한 내부 소식은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기독교 언론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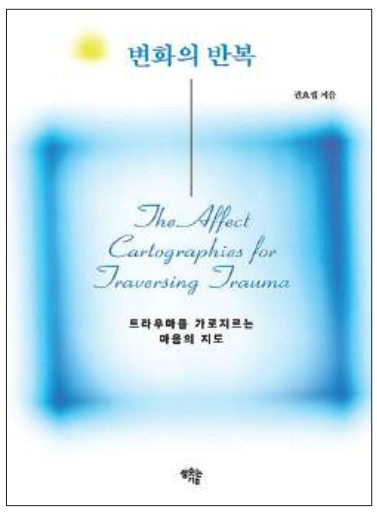
또 “사람을 ‘클릭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탈북 경험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한 사람의 눈물은 콘텐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라며 “인터뷰 대상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와 가족의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트라우마를 가로지르는 마음의 지도

트라우마와 인간 존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다



변화의 반복

권요셉 | 샘솟는기쁨
284쪽

내전에서 탈출한
한 가족의 9년간 여정을
분열분석 관점에서 해명하며,

트라우마를
외상이나 기억이 아닌,

주체를 변형시키는
사건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경험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초대,
현재의 재배치를 만든다

저자는 변화의 반복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주체로
진입하는지를 보여준다

권요셉의 『변화의 반복』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트라우마의 경험을 학문적 성찰과 개인적 서사의 교차점을 통해 풀어낸 독창적 저작이다.

이 책은 단순히 트라우마를 병리적 현상이나 치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인간 존재 자체의 근원적 변화와 전환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저자가 경험한 '남수단 내전'이라는 특수하고도 치열한 맥락은 책 모든 장을 관통하는 구체적 현실로서 자리하며, 독자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극한 경험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겪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 앞에 서게 만든다. 이 책은 무엇보다 전쟁을 겪은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이 단순히 외상적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는 충격과 고통, 회피와 마비의 경험으로만 설명되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이 새로운 자기 이해와 존재론적 깊이를 획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트라우마를 고통의 낙인으로만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처와 붕괴의 경험을 존재론적 가능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해석이다. 따라서 『변화의 반복』은 단순한 심리학적 연구서나 회고록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철학적 사유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가족과 함께 남수단 내전 현장을 직접 경험한 바탕 위에 서술을 전개한다. 이는 단순한 연구적 거리를 두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구가 긴밀히 맞닿은 자리에서 트라우마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저자의 서술은 냉철한 학문적 언어와 동시에 매우 개인적이고 서정적 진술을 넘나든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학문적 객관성과 경험적 실재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하며, 진정한 학문적 탐구는 삶의 구체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삶을 연구하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저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산물이다.

또 『변화의 반복』은 트라우마를 반복적 사건으로 이해한다. 저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봉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트라우마는 망각을 통해 사라지지 않으며, 삶의 궤적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된 형태로 반복된다. 그러나 이 반복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화 가능성을 열어가는 반복이다. 이 점에서 저자는 트라우마를 회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촉발하는 '반복 사건'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은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 개념이나 라캉의 실재 개념과도 접점을 가지면서, 이를 전쟁과 폭력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독창적 시도로 읽힌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트라우마를 개인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점이다. 전쟁이라는 집단적 파국 속에서 개인이 겪는 트라우마는 결코 고립된 경험이 아니며, 공동체 전체의 기억과 역사적 경험 속에 각인된다. 저자는 남수단 내전 현장에서 목격한 공동체적 붕괴와 재구성을 통해, 트라우마가 집단적 서사의 일부로 어떻게 재형성되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오늘날 전쟁, 재난,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개인의 트라우마 치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억과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 책이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저자의 논지는 종종 독자로 하여금 불편한 자리로 초대한다. 트라우마를 '존재론적 전환 계기'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상처와 피해로만 정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트라우마의 고통을 결코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이러한 태도는 고통의 낙관적 미화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직면할 용기에서 비롯된 철저한 사유의 결과다. 따라서 이 책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현대 사회에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성찰을 제시한다.



▲나이지리아 트라우마 센터 주민들 모습. ⓒ오픈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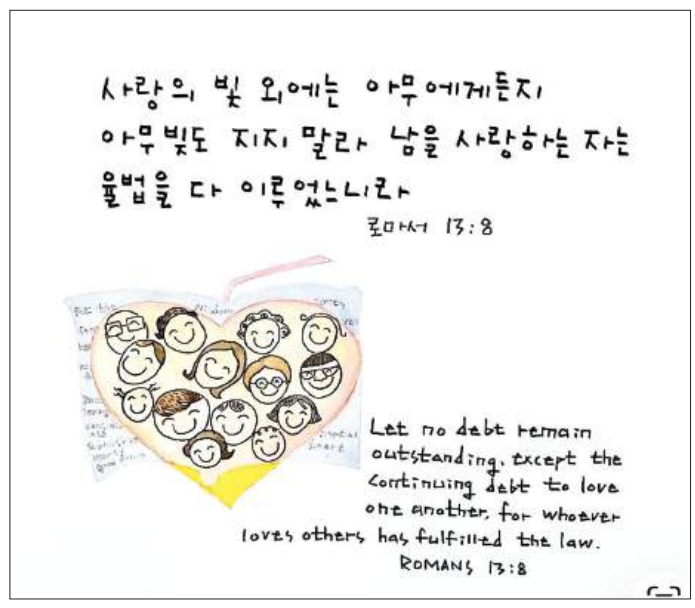
『변화의 반복』은 학문적 담론을 넘어 문학적 장치와 서사의 힘을 활용한다. 저자의 글은 단순한 학술적 논문처럼 건조하지 않고, 서정적이고 내러티브적인 특성을 지닌다. 전쟁 현장에서의 개인적 기억, 가족과의 경험, 공동체의 붕괴와 재건의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체험적 이해를 제공한다.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전쟁 현장 속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깊은 철학적 사유로 이끈다. 이는 저자가 단순히 연구자에 머무르지 않고, 증언자이자 서사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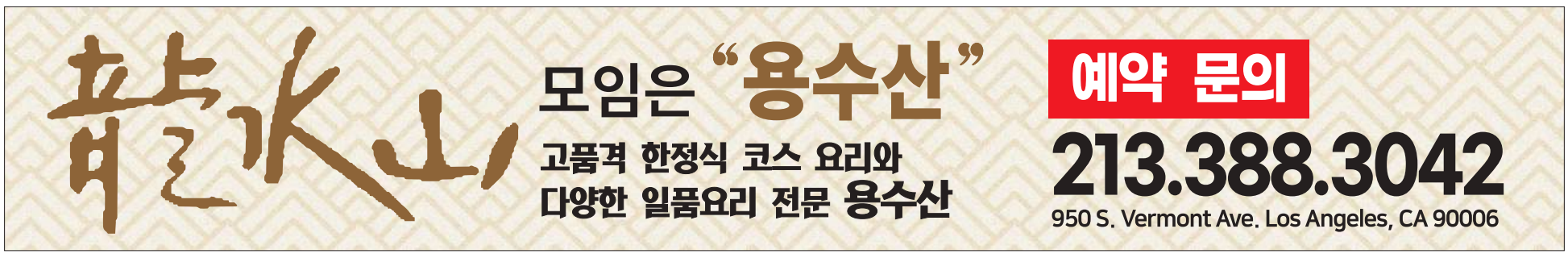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오늘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쟁과 난민, 재난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트라우마적 사건에 직면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는 '치유'와 '극복'을 강조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넘어 트라우마 자체가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는 계기임을 강조한다.

이는 치유를 단순히 과거 상처를 지우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열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영원의 마중물

토마스 만, C. S. 루이스, 톨킨, 자코메티가 말하는 '갈망' 과 예술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향수
토마스 만, 절망과 허무로 귀결
루이스, 초월적 실재 객관 증거로
팀 켈러, 아우구스티누스 동의
자코메티, 갈망의 본질 시각화

토마스 만(Thomas Mann)의 1898년 작 단편소설 『환멸(Enttäuschung)』은 베네치아의 이국적 풍광 속에서 펼쳐지는 어느 이름 없는 이방인 남성의 고백록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가치들을 교육받으며 자라났으며, 이로 인해 실제 현실이 눈부시게 찬란할 것이라는 웅장한 기대감을 가슴에 쌓게 된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실제 삶은 그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남자는 어린 시절 집이 전소되는 위기, 사랑의 실패, 바다를 본 후의 실망을 겪으면서 '이게 다란 말인가?' 하고 고개를 저었다(토마스 만,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외 11편』, 박종대 역, 현대문학, 2013, 323-331쪽).

그는 가장 격정적인 슬픔이나 기쁨을 겪을 때조차, 책에서 읽었던 웅장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빈약함에 절망을 느끼곤 했다. 결국 인생과 현실은 빈약하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경험이 될 '죽음'마저도 자신에게 환멸을 안겨줄 것이라 예견하며 쓸쓸히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소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세상 속으로 들어왔지만 정작 그가 마주한 현실이 내면의 동경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점 더 절망의 나락에 빠져드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는 지상의 현실 속에서 영원이라는 목적론적 해답을 구하려다가 한계에 부딪혀 결국 낙담과 절망에 이르게 된 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상정하고 있다.

이같은 한탄은 C. S. 루이스(C. S. Lewis)가 평생을 사색했던 '제언주흐트(Sehnsucht)'의 렌즈를 통해 볼 때, 확실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루이스에게 '제언주흐트'는 지상의 구체적인 물질, 성취, 혹은 관계를 통해서도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득한 향수를 일컫는다.

루이스는 자전적 수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인간의 마음을 불시에 찾아와 흔들어놓는 노스탤지어를 '기쁨'이라는 단어로 포착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일반적인 쾌락과 다르며,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아득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채워지지 않음 그 자체로 매혹적인 거룩한 불만족이다(C. S. Lewis, 『예기치 못한 기쁨』, 김기찬 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 23쪽).

루이스는 이 욕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는 사실, 그것도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C. 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홍성사, 2001, 213쪽)."

『환멸』의 남성이 갈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고 허무에 빠졌다면, 루이스는 반대로 갈망을 느끼는 주관적 상태 자체를 그 너머에 존재하는 '더 거대한 초월적 실재'를 가리키는 객관적 지표로 해석했다.

배고픔의 욕구가 음식의 존재를 증명하듯,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추어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를 현대 문화의 언어로 재해석한 팀 켈러(Tim Keller) 역시 인간이 누리도록 설계된 기쁨의 총량이 유한한 피조물의 영토를 가볍게 넘어서기 때문에 지상의 가치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Tim Keller, 『답이 되는 기독교』, 윤종석 역, 두란노, 2018, 129쪽).

이러한 진단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사랑의 순서'라는 고전적 통찰로 거슬러 올라간다(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교육론』,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2, 45쪽). 그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사랑해야 할 창조주를 덜 사랑하고 피조물을 우상화해 더 사랑할 때, 삶의 질서는 붕괴한다.

이런 점에서 피조물로부터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 몸부림칠 때, 인간은 결국 '겨우 이게 전부인가?'라는 공허한 탄식에 머물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갈망의 본질을 시각화한 작품이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의 '가리키는 사람(Pointing Man)'이다. 극단적으로 뼈대만 남은 이 조각상은 무언가를 쳐다보며 간신히 서 있다. 그러나 이 인물은 결핍 속에 웅크리기보다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지평을 가리킨다.

인간은 결핍으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기 존재의 한계 너머를 동경하는 존재이다. 루이스의 관점에서 볼 때, 전방을 향해 곧게 뻗은 이 손가락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영원을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지시하는 표시이다. 두 사람의 시각차는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찾아진다. 소설 『환멸』 속 남성은 유명한 예술작품 앞에서도 "아름답기는 하군,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반면 루이스는 예술작품에서의 불만족을 본향의 마중물로 해석했다. 예술은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아직 가보지 못한 꽃의 향기이자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술적 갈망의 종착지를 아름답게 묘사한 서사로 J. R. R. 톨킨(J. R. R. Tolkien)의 '니글의 이파리(Leaf by Niggle)'를 들 수 있다(J. R. R. Tolkien, 『나무와 이파리』, 김보원·이미애 역, ARTE, 2025). 소심한 화가 '니글'은 평생 거대한 나무를 그리고 싶어 했으나, 일상의 의무에 시달리다 결국 '아름다운 이파리 한 장'만을 완성한 채 죽음의 기차 여행을 떠나야 했다.

그의 갈망은 수포로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죽음 이후 니글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바로 그 나무'가 완벽한 실물로 서 있는 것을 목격한다. 톨킨이 주창한 '부창조(Sub-creation)' 개념처럼, 지상의 미완성 속에서 축적된 예술가의 실존적 열망은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모든 창조적 갈망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지시하는 증거가 된다.

자코메티의 조각상 '가리키는 사람'이 나타내듯, 인간은 결핍의 존재인 동시에 영원을 지향하는 손가락을 지닌 이중적 존재이다. 『환멸』의 이방인은 지상의 한계 안에서만 절대적 만족을 구하려다 손가락 끝에 놓인 무덤과 같은 허무를 마주하고 냉소의 밀실로 숨어버렸다.

반면 루이스는 그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굶주림을 도리어 참된 하늘 본향을 향한 지울 수 없는 소망의 실재이자 은혜의 표지로 해석해 냈다. 인간의 이 '근원적 허기'는 지상의 유한함에 갇힐 수 없는 영혼이 본향을 향해 부르짖는 향수이자, 매 순간 영원의 바람을 불어넣는 하늘의 속삭임인 것이다.

아브라함 헤셸(Abraham Joshua Heschel)은 생전에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 갈망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본향의 신비는 우리의 갈망을 세속적인 안일함으로 마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을 향해 더 갈급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는 목마름을 지닌 채 참된 본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마코토 후지무라, 니글의 이파리, 2002, 127x92cm.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 가리키는 사람(Man Pointing, 1947), Bronze, 179x103.4x41.5cm. ⓒMoMA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차기 담임목사 청빙 공고
(1년간 Co-Pastor/동사목사로 사역 후 담임목사로 취임)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인 Chino Hills, California에 위치한 51년 역사의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복음언약장로교) 소속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라는 비전을 품고 성장해 온 보수적 복음주의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맞아,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핵심가치를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차기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되신 목회자는 1년간 동사목사(Co-Pastor)로 현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의 목회 방향과 사역을 공유하고 동역하게 됩니다. 이후 교회의 목회와 사역을 이어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1. 자격 요건
-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주의적 신학적 정체성을 가진 장로교 목사
- 미국 내 정규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이수하신 분
- 미주 지역에서 5년 이상의 Full-time 목회 경험이 있는 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
- 본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이루어가실 분
- 목회적 덕망과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갖추신 분
- 미국 체류 및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ECO(복음언약장로교) 소속 목사 또는 ECO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 목회 및 사역이 가능한 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
- 목회자 자기소개서 및 목회철학
- 최근 설교 영상 2편 (YouTube 또는 Vimeo 링크)
- 신학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 사본
-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청빙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3. 제출 방법
- 제출 마감: 2026년 12월 31일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resume@sunhanchurch.com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이메일)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 위원장 정의태 장로 | www.sunhanchurch.com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 “화평, 일상에서 훈련해야”

2026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9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부터 3시까지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 CTS 아메리카 주관하고 한길교회가 후원했다.

강사로 이철 목사와 여삼열 목사가 나서 “목회와 피스 메이커 사역”, “목회 현장의 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 문화와 성경적 갈등 분석의 실제”에 대해 강의하고, 강의 중간 소그룹 나눔과 마지막 순서로 패널 토의 및 ‘화평한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6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가 9월 29일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 기독일보

이철 목사, “피스메이커 사역은 선택 아닌, 필수”

첫 강의 ‘목회와 피스메이커 사역’에서 이철 목사는 갈등의 원인과 반응, 화해의 원리, 화평케 하는 목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민 생활 가운데 제한된 자원, 경쟁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에 대한 반응을 ▲ 회피, ▲ 공격, ▲ 화해, 세 가지로 나눴다. 갈등을 피해 교회나 직장을 떠나는 것이 회피라면, 욕설이나 폭력, 경제적 압력, 법적 소송 등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것은 공격적 반응이다.

“상대방을 내 요구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욕설이나 폭력, 경제적 또는 직업적인 피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압력과 협박을 사용한다. 상대방을 눌러 꼼짝못하게 하면, 갈등이 없어진다고 착각한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화해’를 제시했다.

그는 “조금만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며, 화해 반응으로 ‘간과’, ‘관계 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의 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목사는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협상,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과 중재, 필요할 경우 교회의 책무까지 설명하며 갈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 목사는 ‘교회의 권징’의 책무에 대해 강조했다. 참된 교회의 표지인, ‘바른 말씀의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에 이어, 세 번째가 이 ‘신실한 권징’이라며 “신실한 권징이 있어야 참된 교회이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세번째 표지, 권징을 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갈등 해결 원리: 4G

특히 그는 성경이 제시하는 갈등 해결의 원리로 ‘4G’를 소개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Glorify God)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Get the log out of your own eye)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Gently Restore) ▲가서 화해하라(Go and be reconciled)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갈등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어서 이철 목사는 ‘화평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떤 계기로 화해의 실마리를 찾았는지 나누었다. 그는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지만 10년쯤 지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에 온 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공원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일도 있었다. 그러면 그는 교회에서 하듯 아내에게 설교하고 아내를 책망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던진 말 “당신은 자신밖에 모르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러니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교회에서 자신을 늘 지지해주던 권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권사는 “사모님 말씀에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라고 답했다.

이 말을 계기로 그의 기도가 달라졌다. 아내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던 데서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에도, 교인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화평케 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화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목회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관계의 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에서 ‘가라’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야 하며, 그 만남 자체가 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스메이커 사역의 중요성

이어 화평케 하는 사역은 선택 사항이 아닌,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예수께서 교회의 하나 됨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말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들어 화평이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을 통해 예배와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일’은 예배의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예물을 재단해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들에게 원망한 말이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 예배에 화평케함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

“추석이 그렇다.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보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돌아간다면, 부모님은 그때 무슨 마음일까? ‘선물 안 가지고 와도 좋으니 제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거룩함뿐 아니라 화평함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는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화평함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시한다. 그러나 그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목사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목회자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을 각오로 하면 교회 하나 된 것은 지켜진다.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죽어도 교회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것을 또 책임져 주신다.”

여삼열 목사, “갈등은 목회의 실패가 아닌 성숙의 과정”

이철 목사의 강의에 이어 여삼열 목사가 ‘목회 현장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와 성경적 갈등 분석의 실제’를 주제로 두 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갈등은 목회의 실패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 성숙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비교 분석했다. 세대 간 갈등, 리더십 승계 과정에서의 후임·원로 목회자 간 갈등, 재정과 행정을 둘러싼 분쟁, 성도 간 금전 및 비즈니스 문제, 인정 욕구와 직분을 둘러싼 갈등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민교회는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이는 만큼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 목사는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없애거나 한쪽의 잘잘못을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피스메이커 사역을 소개하며,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대화와 조정, 중재를 통해 문제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소송 외 분쟁해결)의 개념도 소개했다.

피스메이커는 관계 회복을 바라본다

피스메이커 교육은 평소 성도들이 갈등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대화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스메이커는 법적인 분쟁 해결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갈등을 바라보고,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관계까지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피스메이커 사역이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한국에서는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지를 훈련해야 한다.”

“한국피스메이커는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학교 등을 통해 이러한 신앙훈련을 계속해 왔다.”

주디 한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자녀에게 남긴 25만불, 자녀는 세금 폭탄이라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선영씨, 저는 얼바인에 살고 있는 미스터 김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저는 오래전에 들어놓은 25만불 생명보험이 있고, 401k가 25만불 정도가 있고, 3년 전 집을 팔고 25만불을 어뉴이티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 모든 것을 취소하고 제가 다 찾아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딸 말로는 이런 거 받아 봤자 세금만 많이 내고 본인은 싫다고 하는데 그냥 다 찾아서 캐쉬로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놔뒀다 제가 사망하면 저희 딸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게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따님께서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남겨주지도 말라고 하는 사연이네요.

어떤 자녀들은 세금 내더라도 부모님이 뭐 좀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실 텐데 말이죠. 이 질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401k, 어뉴이티 이 세 가지 자산이 모두 25만 불이라고 해도 세금은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250,000 생명보험은 선생님이 사망했을 때 따님이 받는 25만 불의 사망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 대상이 아닙니다. 즉 따님은 세금 하나 내지 않고 25만 불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지요. 생명보험 받아 봤자 세금 많이 내니까 그냥 없애세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맞지 않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서 이자까지 붙어서 받게 된다면 그때 별도로 붙은 이자는 택스를 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의 생명보험에서 자녀가 수혜자(beneficiary)로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을 받는 경우라면 세금이 없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 25만 불의 401k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지요. 보통 401k는 택스를 내지 않고 넣어서 자란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서 25만 불을 찾으면 아버지는 그해 인컴으로 더해져서 소득세를 내게 되지요. 그래서 “딸이 나중에 세금 낼까 봐 내가 지금 다 찾아서 현금으로 바꿔 놓겠다”는 생각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지금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지요. 또한 401(k)를 딸에게 남기면, 딸이 나중에 인컴 택스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따님의 경우에 어차피 내는 세금,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 한 번에 모두 찾는 방법이 아닌 다른 소득과 택스 브라켓 즉 세율을 고려해서 나눠서 찾게 되지요. 그래서 401(k)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누가, 언제, 얼마씩 인출하면서 세금을 내느냐”가 중요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집을 판 돈 25만 불로 구입한 어뉴이티입니다. 집을 팔고 세금을 이미 낸 돈 25만 불이 선생님이 사망할 때는 이자를 받아서 자라겠지요? 만약 30만 불이 된다고 하면 원금 25만 불에 이자로 받은 금액은 5만 불, 이 경우에도 딸이 30만 불 전부에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받은 5만 불만이 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선생님이 따님에게 남긴 돈이라고 해서 따님이 전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생명보험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어뉴이티는 원금을 제외한 자라난 이자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고, 401k는 따님이 인출할 때 인컴에 더해서 소득세를 내게 될 것이다입니다. 어뉴이티의 경우 부모님의 IRA나 401k의 돈이 들어간 어뉴이티라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렇듯 각각의 상품 특성과 세금을 낸 돈이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내가 찾아 쓸 때, 자녀에게 남겨서 자녀가 받을 때 상황에 따라 세금의 적용이 달라지니, **똑똑한 세금 전략과 상속도 역시 저희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기독일보가 전하는
사랑과 위로의 시간



이윤화 콘서트
'생명의 노래'

10월 27일 – 11월 17일
「New Jersey」, 「Los Angeles」 순회

갈라지고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지침이 멈추고
새로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하며...





New Jersey 일정 (10/26~11/1)

11/01 (주일) 5:00pm 믿음장로교회
1209 W Front St, Lincroft, NJ 07738

Los Angeles 일정 (11/2~11/15)

11/06 (금) 7:30pm 복음장로교회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11/07 (토) 3:00pm 소스 몰(The Source)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11/08 (주일) 1:00pm 밸리주하나교회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11/13 (금) 6:00pm 세계등대교회 (청음 콘서트 / 예약제)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11/15 (주일) 11:30am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이윤화 찬양사역자는
현재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윤화 찬양사역자 대표곡은
「은혜」, 「내려놓음」, 「이땅은」, 「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
「いのちの歌」, 「가장 귀한 삶」, 「나는 무익한 종」 입니다

이윤화 찬양사역자의 활동 내용은
2000. MBC 강변가요제 동상
2004. MBC 시트콤 뉴 논스톱 OST 「그녀」
2006. 그룹 신화 8집 앨범 작사
2007. 대한민국 복음성가제 대상, 작곡상
2010 – 2026. 일본 전 지역 순회 콘서트
2011.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위로 콘서트
2015. FEBC 극동방송 음악 프로그램 크리스천 음악 공감 블레싱 MC
2016. CCM 정규 3집 「소망이 끝나는 날에」 발매
2018. CCM 싱글 앨범 「이땅은」 발매
2019. CCM 일본어 앨범 「いのちの歌」 발매
2020. CCM Jworship 5집 「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
2020.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
2021. 작곡가 손경민 미니앨범 「은혜」
2024 – 2025. 일본 노토 지역 위로 콘서트 등 입니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후원교회 믿음장로교회, 복음장로교회, 밸리주하나교회
세계등대교회, 나성영락교회

후원업체 BTS 솔라 design, 센터메디컬그룹,
Trinity MS, The Source, 미주복음방송